

연예뉴스 스테이션

'대장금 김치' 법정 분쟁...이영애 측 "초상권 침해"



이영애(사진)는 최근 일침명가에서 출시한 '이영애 김치'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해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조건에는 반드시 이영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김치 출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일침명가는 "'대장금'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장금'에서 이영애가 연기한 '장금이'의 모습을 브랜드로 삼은 김치 및 산삼 제품을 출시해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8월 웨딩마치? 추측은 자제해 달라"

연기자 이혜영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8월 결혼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혜영은 2009년 초부터 한 살 연상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와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장동건과 고소영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들어 또 한 차례 불거진 결혼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결혼 전제로 사관다고 이미 밝혔듯이 좋은 소식이 들리면 바로 알려드리겠다. 그전까지 추측을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동방신기·소시·슈주 등 9월 도쿄돔서 SM합동공연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싸이인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9월3~4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연다. '에스엠타운 라이브 인 도쿄 스페셜 에디션(SMTO WN LIVE in TOKYO SPECIAL EDITION)'은 애초 4월 9~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3월 일어난 일본 대지진 참사로 잠정연기 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도쿄돔은 총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간 무려 10만 명의 팬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은 도쿄돔 공연에 앞서 6월10일 프랑스 파리에서도 공연을 한다.

JYJ 박유천 장염 걸려...드라마 촬영 등 피로 누적



인기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사진)이 장염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JYJ의 한 관계자는 27일 "박유천이 25일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는 집에서 휴식중이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은 최근 주연을 맡은 드라마 '리플리' 촬영과 태국, 대만 등 해외 콘서트 일정으로 몸이 무리가 왔던 것 같다"면서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수현, 日 DA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드림하이'의 스타 김수현이 일본 매니지먼트사 DA(디지털 어드벤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DA는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 DATV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웅준과 김현중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DA는 "김수현은 일본에서 공식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팬베이스가 생길 만큼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소지섭,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 모델 발탁

소지섭(31)이 코카-콜라사의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의 모델로 발탁됐다고 소속사가 밝혔다. 소속사는 "소지섭이 수영과 수구는 물론 테니스와 골프, 권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인 데다, 늘 노력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광고주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소지섭의 새 CF는 5월부터 방송한다. 소지섭은 현재 영화 '오직 그대만'에서 한 여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복싱 선수 역을 맡아 현재 복싱 연습에 한창이다.

김병만, MBC 다큐 '타임' 카메오 출연

개그맨 김병만이 MBC 다큐멘터리 시리즈 '타임'의 첫 번째 작품 '새드무비를 아시나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6월 초 방송하는 '새드무비를 아시나요?'는 50년간 달라진 연애의 행태를 다룬 작품으로, 이후호 기자와 윤능호 기자가 연출하며 배우 공효진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노래 이션을 맡았다. 김병만은 프로그램 중 송창식의 뮤직 비디오 '한번쯤'에 웨이터로 출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응원한다.

책 랭킹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1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2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3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도원		홍익출판사
4	바보 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5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6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7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8	화내지 않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9	4001	신정아	사월의 책
10	빌딩부자들	성선화	다산북스

7080 문화권력이 '판'을 바꾼다

유호정·진희경·김지호·김현주 은막의 여우들 "반갑다! 영화야"

슈퍼리브 완성 언니와 함께 춤을 춰봐요 아후!

퇴색되지 않은 인기 창모 오빠 라디오 컴백 브라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진섭 오빠 오후 2시 우리에게로 또 다시

중장년층 향수·추억 자극...7080세대 넘어 세대를 관통



최근 왕년의 인기 스타들이 줄줄이 컴백해 팬들과 추억을 나누고 있다. 맨위 오른쪽 사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변진섭, 구창모, 김완선, 진희경, 유호정, 홍진희, 스포츠동아DB

한방에 뜬 복싱스타 이원석, 그의 뒤엔 최무룡 있었다

스타, 그때의 오늘 1969년 日서 동양챔피언 결정전

연예스타와 스포츠스타들은 강한 연대의 끈을 자랑하곤 한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고, 각기 기량과 재능으로 승부를 건다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때로 이성 간에는 사랑을, 동성 간에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인연을 맺는다.

1969년 오늘, 일본 도쿄에서 프로복싱 뱅텀급 동양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다. 이날 링에 오른 선수는 한국의 이원석. 21세의 그는 챔피언인 일본의 아오키 가츠도시를 맞아 11회에 KO로 물리쳤다. 무려 4년 동안 챔피언 벨트를 내놓지 않았던 아오키 가츠도시를 쓰러뜨린 쾌거였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배우 최무룡과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김지미가 이원석

의 매니저 겸 후원인으로 보살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이원석을 아마추어에서 프로복서로 전향시킨 이들이기도 했다.

전북 군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원석은 1963년 군산제일고등학교 재학 중 아마추어 대회에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던 그는 그러나 1964년 도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실의에 빠졌다.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원석을 지켜본 최무룡은 결국 그에게 프로 전향을 권유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에 이원석은 프로로 전향, 동양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다. 최무룡은 이원석의 패거가 전해진 그해 4월29일 "정말 보람을 느낀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스타'들이 돌아온다.

한 시절을 화려하게 풍미했던, 그리고 지금 더욱 완숙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스타'인 이들도. 유호정, 진희경, 홍진희, 김지호, 김현주 등 연기자들은 물론 구창모, 김완선, 변진섭 등 가수들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귀환이 요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왜 돌아온 것일까.

●뽕뽕함에서 원숙함으로 돌아온 그들

5월4일 개봉하는 영화 '씨니'는 40대가 된 7명의 친구가 1980년대 여고시절의 우정을 회상하는 작품이다. 영화에는 10대 여고시절의 아역과 함께 성인역을 맡은 40대 여배우들이 등장한다. 유호정, 진희경, 홍진희가 그 주인공이다.

유호정은 2002년 임권택 감독 '취화선' 이후 9년 만에, 홍진희는 2001년 드라마 '상도' 이후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0년대 스크린 주역 중 한 명이던 진희경 역시 2004년 '고독이 몸부림칠 때' 이후 오랜만에 주연을 맡았다.

1990년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던 김지호, 그녀도 임순례 감독이 제작을 총괄한 프로젝트 '미안해, 고마워'에 출연했다. 14년 만의 스크린 복귀다. 그것도 노 개런티다.

김지호는 5월26일 개봉하는 '미안해, 고마워'에서 송일곤 감독이 연출한 '고마워, 미안해' 편에 출연했다. 반려견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미술관 큐레이터 역이다.

MBC 주말극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 중인 김현주도 2004년 '신석기 블루스' 이후 7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28일 개봉하는 인권영화 프로젝트 '시선'의 다섯 번째 작품 '시선 너머'에서 김대승 감독의 '백문백답' 편에 출연했다. 성폭행을 당한 채 오히려 피의자 취급을 받는 디자이너 역이 그녀의 몫이다.

●노래는 세대를 관통하는 힘...가수도 있다

구창모 변진섭 김완선 등 80~90년대를 주름잡던 '왕년의 가수'는 '그 시절의 추억'을 선물한다.

'원조 댄싱 퀸'인 김완선은 '제2의 전성기'를 선언하며 6년 만에 컴백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도 당시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과 만나고 싶었다"라고 돌아온 이유를 밝혔다.

김완선이 새 음반으로 간재함을 과시했다면 변진섭과 구창모는 라디오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3월 초 '7080세대를 위한 맞춤형 채널'로 바뀐 SBS 라디오 러브FM을 통해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했다.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다시'로 90년대 초 인기 발라드 가수였던 변진섭은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를 통해 90년대 인기가요를 들려준다. 변진섭은 소속사를 통해 "당시를 기억해주는 청취자와 만나니 추억도 빠지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평일 오후 6시 '브라보 라디오 구창모입니다'를 진행하는 구창모는 무려 20년 만에 방송으로 돌아왔다. 그룹 송골매 보컬 출신인 구창모는 같은 활동했던 배철수와 달리 90년대 초 출연한 가요계를 떠나 팬들의 아쉬움을 샀었다.

●향수, 추억 그리고 다채로움

추억의 스타들의 잇따른 컴백은 30대 이후 중장년층의 향수와 추억을 자극한다. 아예 영화 '씨니'처럼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대 청춘을 보낸 많은 관객의 추억을 자극하는 작품도 나왔다. '씨니'의 진희경은 "실제로 내 10대 시절을 추억하며 연기할 수 있겠다는 설렘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진희 역시 "내 고교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면들이 많다는 공감대가 출연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다. 구창모와 변진섭을 라디오 DJ로 발탁한 SBS 전문수 라디오 기획 CP는 "7080세대는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소외됐던 계층이다. 이 층을 타깃으로 제대로 된 라디오 문화를 만들어보려고 생각했다"면서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장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이른바 '7080문화'가 정착돼 중장년층 대중문화 향유층이 그만큼 폭넓게 존재한다는 배경도 작용했다. 최근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 '세시봉 친구들'이 커다란 화제를 모은 것도 새로운 문화 소비층의 존재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충무로 한 관계자는 "그렇게 넓어진 문화 콘텐츠 속에서 스타들과 대중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만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 @mangoostar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제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보험액은 3천만 원, 건강보험에 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